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8월 미 일자리 크게 상승…16만2천건
- WSJ: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로 금리 인상 열리나?
- YahooFinance: 이번 보고서 발표에 연준 의장 입장은?

[미국 금융]
- CNBC: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2년물 미 국채 금리 크게 상승
- CNBC: 비트코인 3주 연속 상승세…시장 변동 피난처

[오일]
- Reuters: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6주 만에 최고치
- CNNBusiness: 노동절 휘발유 역대 최고치 예상

[주택]
- CNNBusiness: 미 모기지 금리 7% 육박… 2026년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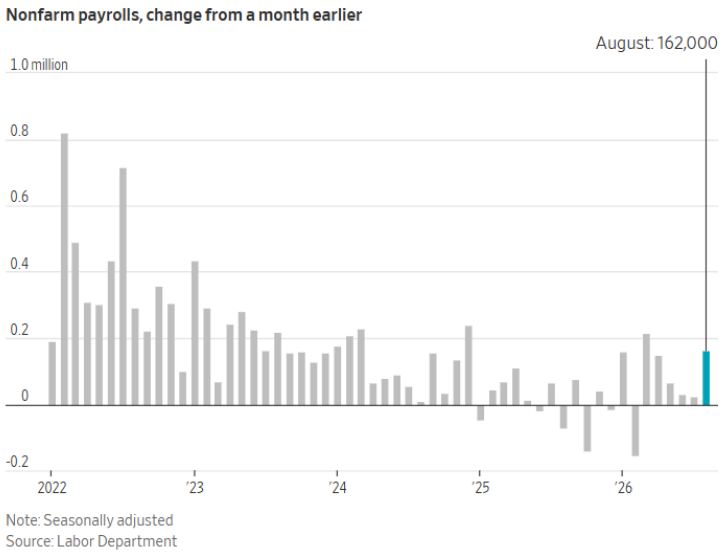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독일 폭스바겐, 5만 명 추가 감원 발표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U.S. Adds a Whopping 162,000 Jobs in a Bright Spot for the Economy
8월 미 일자리 크게 상승…16만2천건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는 8월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16.2만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전망과 동일한 4.1%로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했다.
- 시장 예상치였던 5.3만 건을 크게 웃돌며 여름 초 부진을 털어낸 모습이다.
- 고용 호조에 따라 연준은 이제 고용 상황보다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다음 주 금요일(11일) 발표되며, 연준 회의는 이달 말 열린다.



기사

WSJ: August Jobs Report Removes an Obstacle to a Fed Hike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로 금리 인상 열리나?

- 8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고용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이유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 그렇다고 고용 호조가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임금 상승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물가를 직접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다만 일자리와 소득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제 활동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

YahooFinance: Fed Chairman Kevin Warsh just changed the rules for trading the jobs report: One Big Investment Idea
이번 보고서 발표에 연준 의장 입장은?

- 월가는 금요일 고용 지표에 일희일비하겠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일주일 전 잭슨홀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향후 금리 향방을 미리 암시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물가·고용·기업 활동 등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현재 그의 시각은 매파적이다. 고용은 견조하고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으며,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 그는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 신중하며 시장 스스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이 연준의 신호만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연준 정책의 가이드가 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2-year yield rises to highest since January 2025 after hot jobs report boosts expectations that the Fed could raise rates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2년물 미 국채 금리 크게 상승

-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자 시장이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오늘 금요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 기준물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미만 오른 4.802%를 기록했다. 그런데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한 4.425%로,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30년물 금리는 5.263%로 보합세를 보였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4.774%	+0.012
US1M	U.S. 1 Month Treasury	3.749%	-0.006
US1Y	U.S. 1 Year Treasury	4.138%	+0.031
US2Y	U.S. 2 Year Treasury	4.368%	+0.034
US30Y	U.S. 30 Year Treasury	5.243%	UNCH
US3M	U.S. 3 Month Treasury	3.86%	+0.022
US6M	U.S. 6 Month Treasury	4.01%	+0.024

기사

CNBC: Bitcoin heads for third winning week in a row as macro pressures mount
비트코인 3주 연속 상승세…시장 변동 피난처

- 주식, 환율,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피난처를 찾는 투자자들로 인해 비트코인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 4.6% 올랐으며, 밤사이 8만 2,272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5월 최고치(8만 2,50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현재는 8만 1,151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암호화폐나 금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Bitcoin 5-day chart

기사

[오일]

Reuters: Oil heads for weekly gain as US-Iran fighting resumes; diesel hits record high
오일 계속 상승세… 브렌트유 95달러

-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7개월째 이어지고 이번 주 국제유가는 6%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브렌트유는 주간 6.1%, 서부텍사스유는 8.3% 올랐다. 미 디젤 가격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94.77달러, WTI는 90.35달러를 기록했다.
- 유가와 연료비의 가파른 상승은 글로벌 물가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연착륙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사

CNNBusiness: Labor Day gas has never been this expensive. Trump is scrambling for answers
노동절 휘발유 역대 최고치 예상

- 이번 노동절 유가가 갤런당 최소 $4.03로, 지난해 $3.16 및 2012년 최고치인 $3.83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초 저렴한 에너지를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다.
- 유가 급등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간의 전쟁이다. 이 충돌로 기름값뿐만 아니라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항공유 가격도 폭등했다.
-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운임과 수하물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줄이고 있다.

기사

[주택]

CNNBusniness: Mortgage rates hit a new high for 2026, marching closer to 7%
미 모기지 금리 7% 육박… 2026년 최고치 경신

- 미국 모기지 금리가 7% 선에 바짝 다가서며 2026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커지는 상황이다.
- 이 같은 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심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사

[비즈니스외 기업동향]

CNBC: Volkswagen plans 50,000 job cuts as analysts see ‘halo effect’ for German auto industry
독일 폭스바겐, 5만 명 추가 감원 발표

-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 폭스바겐이 5만 명의 추가 감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금요일 주가가 급등했다.
-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은 그룹 89년 역사상 대규모 구조 조정을 골자로 한 '미래 플랜 203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에는 임원진을 포함한 5만 명 추가 감원과 조직 개편이 포함되며, 기존 감원 안을 더해 총 감원 규모는 10만 명에 달한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3,298.10	-387.4	-0.72%
US 500	7,704.60	-43.0	-0.55%
Dow Jones	53,309.91	-376.20	-0.70%
S&P 500	7,706.75	-40.84	-0.53%
Nasdaq	26,452.04	-132.02	-0.50%
S&P 500 VIX	14.20	-0.12	-0.84%
Dollar Index	99.055	+0.175	+0.18%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32	5.244	-0.007
10-Year Note	4.625	0/32	4.778	0.005
7-Year Note	4.5	-1/32	4.649	0.010
5-Year Note	4.375	-1/32	4.541	0.017
3-Year Note	4.25	-1/32	4.443	0.027
2-Year Note	4.125	0/32	4.374	0.023
1-Year Bill	0	1/32	4.137	0.025
6-Month Bill	0	1/32	4.016	0.025
3-Month Bill	0	1/32	3.862	0.019
1-Month Bill	0	2/32	3.752	0.062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47.00	1,565.35	863.30	200.83	1.1629	99.09
-11.50 (0.85%)	-13.70 (0.87%)	-6.89 (0.79%)	-1.39 (0.69%)	+0.0042 (0.36%)	+0.18 (0.18%)
9. 5. 00:30 • 실시간	9. 5. 00:30 • 실시간	9. 5. 00:30 • 실시간	9. 5. 00:30 • 실시간	9. 3.	9. 4. 11:21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47.40
1,347.40 원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